

그림 속 옛사람... 생김새를 본다, 본새를 읽는다

'사람 보는 눈' 손철주 지음

"단원과 혜원의 진면목이 그려 하듯이 조선 남녀의 사랑을 소재로 한 풍속화는 은근한 에로스가 진국이다. 다소 싱거운 듯해도 자극을 겪어낸 담백한 맛이 일풀이다. 봄은 덮었다. 또는 드가 버린다. 그 잘 나져 황홀이 한 줌의 재가 될지언정 봄날의 상사는 누가 말려도 괜찮다. 그래서 사랑은 가 없다. 조선의 풍속화는 봄날의 삶은 황홀과 아찔한 유혹, 남녀의 가녀린 페미와 끌립을 담는다."(‘사람 보는 눈’ 중에)

미술평론가이자 학고재 주간인 손철주씨가 ‘사람 보는 눈’을 폐했다. 책에는 그림 속 옛 사람의 생김새와 매무새는 물론 품새와 본새까지도 읽어낸다. 저자 특유의 눈썰미가 맛깔스럽다.

저자가 읽어내는 의미의 스페트럼은 사뭇 넓다. 관료들의 체통, 여인네의 은근함, 남부어대(男負女戴) 행상의 밥벌이, 기생의 수작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만만치 않다.

책에는 모두 85편의 그림이 수록돼 있다. 그 중 10여 편이 사람의 등장하는 인물화다. 인물과 더불어 어떤 소재를 다룬다. 화가는 단연 김홍도와 신윤복이다. 단원의 풍속화는 정겹고 따스운데 비해, 혜원의 그림들은 애ущ하고 뜨겁다. 여기에 사람살이의 잔정과 설움



이 비치기도 하고, 늙은 음식과 젖은 난봉기질이 드러나 보이기도 한다.

4부 ‘있거나 없거나 풍경’은 산수 인물화와 사람이 없는 풍경 10여 편을 분석한다. 친숙한 산수 인물화 또한 우리네 시선과 소망을 담은 심상이다. 흐르는 강물과 가을 달빛, 온 산의 홍엽과 적막한 겨울 풍경을 바라보는 저자의 감성은 풋풋하고 살갑다.

이 책의 미덕은 글맛에 있다. 저자 특유의 감칠맛 나는 문장은 예스럽되 세련미를 잃지 않는다. 당송 시대 한시로부터 오늘의 은어에 이르기까지 구성지면서도 화려하다. 절묘한 영탄과 적절한 의상, 여러 세대의 언어가 스민 구어체 등은 다양한 독자와 소통하려는 저자의 의지로 읽힌다.

저자는 사람 그림들을 펼쳐놓고 보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깨닫는다 고 한다. 그 의미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넘지지 건네는 것 같아 한번쯤 새겨들을 만하다.

“그림 밖의 사람은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고, 그림 속의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이 많다. 이를 진대 사람 그림을, 그려진 사람으로만 여기겠는가. 보고 또 볼일이다.”

〈현암사·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이재관 강이오 초상

7명의 기획자에게 듣는 ‘도시란?’

‘도시 기획자들’

은유 지음

연구공동체 수유너머R에서 글쓰기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은유씨가 7명의 도시 기획자를 만나 인터뷰한 기록을 담은 ‘도시 기획자들-삭막한 도시를 살만한 곳으로 바꾸고 있는 삶의 혁명가들’이 나왔다.

그들 7명의 기획자에게 ‘도시는 인문학이고 농부고, 숲이다. 또 이야기이고, 육방이고, 청년이고, 예술이다.’

가죽 패션 브랜드 ‘쌈지’로 유명한 천호균씨는 이제 ‘쌈지 농부’의 대표 농부로 불린다. 그에게 농사는 예술과 동의어다. 그는 시청 앞에 눈을 만



드는 꿈을 꾸고 있다.

홍대 클럽데이를 만든 최정한은 도시의 유행 에너지에 주목하고, 전주의 ‘남부시장’ 프로젝트를 일궈낸 사회적 기업 ‘이음’의 대표 김병수는 ‘청년’에 의미를 부여해 새로운 도시를 기획했다.

책에서는 또 서울과 우복파스티벌 기획자 이재관, 공공미술 프리즘 대표 유다희, 이야기를 통해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는 커뮤니티 플레이너 오행은씨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소란·1만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만화로 만나는 도올의 ‘논어란?’

‘도올 만화논어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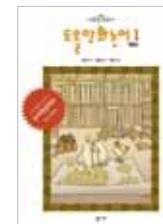
보현 지음

재미있는 그림 만화책을 보면서 공자의 ‘논어’를 완독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이만한 매력이 어디 있을까.

도올 김용옥 선생의 ‘논어한글역주’를 저본으로 만화작가 보현이 고전 만화를 그렸다.

만화를 그리기 위해 철학과를 다녔다는 저자는 이 만화작업에 3년간의 공을 들였다.

시대를 초월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경전 ‘논어’ 499장 전체를 한 구절도 빠짐없이 만화책 5권으로 쉽게 풀어냈다.



만화에는 한문의 원문이 한글 발음과 함께 모두 실려 있고 날 날이 번역됐다.

‘논어’의 구절 구절이 쓰여진 역사적 시대상황이 한눈에 잡히고, 메시지의 포인트들을 명료하게 알 수 있도록 재미나게 그려졌다. 공자와 그 제자들의 인간적인 매력도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2권이 동시 출간됐으며 3권은 2014년 1월초, 4·5권은 6월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동나루·각권 1만29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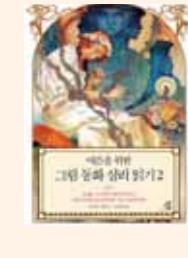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신간

▲ 철학과 함께한 일주일=막연하게나마 철학에 흥미가 있거나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 인생의 의미를 찾다가 ‘혹시 철학책에서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철학서다. 짧은 철학자와 함께한 일주일 간의 철학수업은 분명 독자의 인생에 조금씩 변화를 줄 것이다. 어느 순간 철학자처럼 사고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삶의 본질과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깨달음도 얻게 될 것이다. 〈피플트리·1만3000원〉

▲ 어른을 위한 그림 동화 심리 읽기2=‘손 없는 소녀’, ‘백설공주’, ‘흰눈이와 빨간 장미’, ‘흘레 아주머니’까지 심층심리학으로 들여다본 여성 심리의 비밀, 심층심리학적 동화 읽기의 대가인 오이겐 드레버만이 심리학적 동화읽기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2권에서는 성장을 가로막는 불안과 두려움의 죽례를 풀고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선 용기 있는 여자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독자들은 동화 속 인물을 살아 있는 현실의 인간으로 만날 수 있다. 〈교양인·2만8000원〉

▲ 중력 우주를 지배하는 힘=중력은 우리에게 친근한 힘이지만 그 정체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뉴턴역학에서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까지, 중력이론의 획기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중력의 정체는 아직까지 불가사의한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책은 물리학 이론의 토대 위에서 초끈이론이 탄생해 발전하는 과정과 전망을 탐색한다. 〈도서출판 지양사·1만5000원〉



▲ 세계 경제 측의 대이동=‘현존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컨설팅펌’라고 불리는 맵 차란이 독보적인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놓았다. 글로벌 팀의 원인으로 중국의 성장, 디지털과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혁명, 세계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 금융 위기 등을 들어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자기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을 만한 깊이 있는 통찰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준다. 〈21세기북스·2만3000원〉

▲ 유대인 창의성의 비밀=유대인의 현재와 미래를 깊숙하게 들여다본다. 전 세계인의 삶 구조구조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온 IT 산업의 선두주자들과 영화 산업의 거장들, 관광 산업의 업적들을 낱낱이 짚어보고, 그 문화적이고 창조적인 두뇌의 비밀을 풀기 위해 그들의 교육 시스템과 독특한 정신세계, 문화적 환경을 면밀하게 탐구한다. 책은 또 밭과 단계에 있는 우리의 창조경제를 위한 여러 제언도 담고 있다. 〈행성·B잎새·1만7000원〉

▲ 양자의학, 새로운 의학의 탄생=자연치료, 마음치료, 동종요법, 기공치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무언가의 존재를 입증해내기 위해 물리학, 의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한 방대한 연구 사례들을 소개한다. 뜻입인 조사와 연구를 거듭해 믿을 수 있는 과학적 이론과 사례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차원의 폐라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돌을 새김·3만5000원〉



길은 그 자체로 스승이자 책, 배움을 얻다

‘길이 학교다’

조지욱 지음

인류는 지구상에 첫발을 내딛은 동시에 길을 열었다. 하지만 그 길은 이미 자연이 품고 있던 것이었다. 인간은 자연의 길을 편의와 용도에 맞게 닦거나 새로 길을 내기도 했다. 길이 일상적인 장소인 동시에 인류 역사의 장대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인문학의 보고인 것은 그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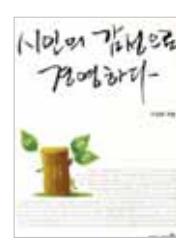
고등학교에서 지리를 가르치는 조지욱 교사는 폐낸 ‘길이 학교다’는 길을 매개로 한 인간의 역사를 들여다 본다. 길은 번영과 쇠퇴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생명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 길이 지닌 양면적인 특성이다. 저자는 그동안 제대로 다뤄진 적이 없던 ‘길’을 주제로 역사, 지리,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

식과 사유를 펼쳐 보인다. 책에는 20년째 학생들을 가르쳐온 저자의 전문 지식과 직접 답사하며 몸에 새긴 생생한 경험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셋이 길을 가면 그중에 스승이 있다’는 말이 있다. 그것은 길이 그 자체로 스승이라는 의미 또한 담고 있다. 배움은 학교뿐만 아니라 노천의 각지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길을 고찰한다는 것은 곧 인간과 인간이 이룬 세계를 통찰한다는 뜻도 포함한다. 다양한 배움을 얻는 세계적이고 조직적인 제도가 학교라면, 길은 개인의 일상과 인류의 역사가 드리워진 비조직적인 ‘노천학교’라고 할 수 있다. 〈낮은산·1만3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신인의 감성으로 경영하다. 6부서에 경영을 접목하다로 이루어져 있다. 책 어느 부분을 펼치더라도 도유명 신인의 시와 저자의 자작 시 등을 만날 수 있다.

“순으로 쓰고 가슴으로 전해지 는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 책이 지치고 힘든 많은 이들의 아픈 삶처를 치유하며 삶의 새로운 의미를 갖게 해주는 행복 바이러스가 되길 바란다.”

저자는 시인의 감성으로 경영하면 가정도, 기업도, 국가도, 개인도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감성으로 보고 말하고 느끼고 소통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의미다.

〈도서출판 소리·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행복에 대한 새로운 가치... 일상에서 얻은 철학

‘시인의 감성으로 경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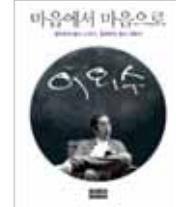
이경재 지음

시를 경영과 인간의 삶에 접목한 이색적인 책이 출간됐다. 풍경연구소장 이경재 박사(경계학)가 폐낸 ‘시인의 감성으로 경영하다’는 행복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제시한다.

저자는 다른 강의 주제는 경제, 경영, 법률, 보험은 물론 예술, 리더십, 자기계발 등 다양하다. 요즘에 통용되는 ‘융합’의 트렌드와도 맞아떨어진다. 저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애피소드로 자신만의 철학을 담백하게 풀어낸다.

책은 모두 6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시를 통한 치유, 2부 시와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 3부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 등이다. 4부 꿈을 키워주는 사람, 5부

음으로는 이외수가 세상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이외수가 세상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마음에서 마음으로’

하창수 역음

“무엇이 생각이고, 무엇이 마음입니까?”(하창수)

“가령, 화천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간다’라고 하면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라고 하면 마음이 내린답니다. 대상과 내가 이분화되며 생각입니다. 대상과 내가 합일이 되면 그게 마음입니다. 생각에 의존해서 사는 삶보다 마음에 의존해서 사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내게는 구원이었습니다.”(이외수)

소설가 하창수가 지난 겨울부터 올 봄까지 기행과 과학, 특유의 곤충학으로 바쁜 천재, 광인 같은 기인으로 불리는 소설가 이외수를 만났다. ‘마음에서 마

음으로’는 이외수가 세상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창수와의 대담으로 엮은 책이다.

대학의 주제는 크게 네 가지다. 예술, 인생, 세상, 우주. 두 소설가는 일상적이고 소소한 질문에서 세상과 우주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까지 각 영역을 넘나들며 문답을 주고 받았다.

‘멘토들의 멘토’ ‘160만 팔로어를 지닌 트위터 대통령’ 등으로 불리며 ‘문제적 인물’로 불리는 이외수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외수는 기저에 자리 잡은 정신의 뿌리를 발견하고, 영속적 세계의 인식에 대한 해석을 담았다는 것이 출판사의 설명이다.

〈김영사·1만3800원〉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